

여수시, 내년예산 1조 5567억원 편성

올해보다 1854억원 증액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육성
정주여건 조성·해양관광 역점

여수시가 내년도 예산안 1조 5567억원을 편성해 '미항여수'로의 본격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여수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1854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1조 3982억원, 특별회계는 1584억원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민선8기 핵심사업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등 국제행사 성공개최 기반 마련 ▲시민중심 맞춤형 정주여건 조성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2050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국제행사 기반 마련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 기반 조성 12억원 ▲제17차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계총회 개최 5억5000만원 ▲여수국제미술제 2억3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중심 맞춤형 정주여건 조성사업으로는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 610억원 ▲공원 조성사업 220억원 ▲전라선 옛길길공원 조성사업 90억원 ▲공영주차장 및 소규모 주차장 조성 47억원 ▲웅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35억원 ▲4060 리스타트 창업 교육 1억5000만원을 반영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금오도 비령길 활성화사업 8억원 ▲화정면 개도 테마 관광자원 개발사업 6억원 ▲가고싶은섬(연도) 가꾸기 9억7000만원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금오도 비령길 활성화사업 8억원 ▲화정면 개도 테마

관광자원 개발사업 6억원 ▲가고싶은섬(연도) 가꾸기 9억7000만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0억원 ▲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41억8000만원 ▲대기오염 측정망 관리 2억2000만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4억원 ▲수소 전기승용차 보급 75억원 ▲전기 승용차 보급 44억원 등도 편성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은 권역별 균형발전, 여수형 보편복지, 명품 해양관광도시 건설, 신성장 맞춤 산업지원 등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의 본격적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주요 현안과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내년도 시장운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번 달 29일부터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여수=김창희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21일 열린 혁신농업인센터 개관식에서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순천시, 농업교육시설 혁신농업인센터 개관

미래 농정 이끌 상생 플랫폼 구축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가 개관했다. 혁신농업인센터는 기존의 덕월동 농업교육관이 지은 지 33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되어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사업에 공모해 건립했다. 연면적 1490㎡, 지상 3층 규모다. 총 3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시설은 200석 규모의 대강당, 실습교육장과 정보화교육장, 최근 소비업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라이브 방송국 설비도 갖추었다. 2층에는 농업인단체 사무실과 회의실, 농서북카페를 설치해 농업인 및 농업단체 간 소통과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21일 열린 개관식에서는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한 귀빈과 학습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혁신농업

인센터 개관을 축하했다. 개관식과 함께 혁신농업인센터 강당에서 학습단체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해 200여 명의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이 '인문학에서 바라본 치유농업'이란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또한 이복만 한국농촌지도자 순천시연합회 회장과 최경희 한국생활개선 순천시연합회 회장 등 농업인 학습단체 임원들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응원하며 입장권을 사전 구매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3만 순천시 농업인의 소통과 공유의 장이 마련된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역량강화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40억+ α 혜택" ...곡성군 생활폐기물시설 입지 3차 공모

지원지역 없을땐 직접 선정

곡성군이 40억원 규모의 주민편의시설과 추가 주민기금 조성 등을 내걸었지만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에 애를 먹고 있다.

곡성군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후보지를 제공모호한다고 밝혔다.

군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해 대상 부지를 물색하고 있지만, 7월과 10월의 1·2차 공모에서 입지 지원 신청이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오는 12월까지 3차 공모 후에도 지원 지역이 없

으면, 용역을 거쳐 직접 입지 선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곡성군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광주시와 맺은 광역 위생매립장 사용 협약이 2025년 만료됨에 따라 지역 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신설을 추진 중이다. 소각장(1일 20t 처리 용량), 매립시설(11만8000㎡), 자원 회수센터(1일 13t 처리 용량), 음식물류폐기물(1일 10t 처리 용량) 등을 갖출 계획이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주변 마을에는 약 40억원 규모의 주민 편의 시설을 인센티브로 제공

할 계획이다.

또 해마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등을 주민 지원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군은 읍면 이장간담회에 홍보하고,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유치 희망 지역이 나오지 미지수다.

곡성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현재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지역에 필요한 시설인 만큼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kwangju.co.kr

고흥군 고병원성 AI 방역 총력

소독시설 운영·전담공무원 배치

고흥군이 고병원성 AI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고흥군은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 발생 시기가 지난 해 보다 빠른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 기축방역관련 비상대책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방역에 나섰다.

회의에서는 고병원성 AI 방역 비상대책과 관련해 단계별 조치사항, 상황관리, 차단방역 등 방역 추진상황 보고와 함께 AI 차단을 위한 효율적인 방역대책 등이 논의됐다.

고흥군은 앞서 지난달부터 특별방역대책 계획을 수립해 거점소독시설 및 종오리 사육농가에 통제초소를 운영 중이며, 특별방역기간(2022년 10월-2023년 2월)중 출입이 통제되는 가금농장에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매일 1회 전화예찰과 주 1회 농장방문 점검을 통해 AI 차단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축산농가의 책임인방역 의식"임을 강조하며 "읍·면의 축산농가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자발적인 예방활동"을 당부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

곡성읍청년회 12가구에 사랑의 연탄 배달



곡성군 곡성읍 청년회(유성운)는 지난 20일 청년회원 및 봉사단 40여명이 참석해 지역의 소외된 홀몸 어르신 및 장애인 12가구에 연탄 1400장과 백미10kg, 온열매트, 라면 등 동절기 생필품을 전달했다. 곡성읍청년회는 1988년 제1대 이상철 곡성군수를 필두로 설립 이래 40여년간 꾸준히 지역사회봉사활동의 중추로 자리해 왔다. <곡성군 제공>

구례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생태 체험 인기

구례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진행되는 '야생화 원목트레이 꾸미기' 체험이 큰 인기다.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구례북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야생화 원목트레이 꾸미기' 체험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어린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길로 원목트레이에 야생화로 만든 압화를 삼여시 집어 들고 상상의 나라를 열고 나만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집중을 다했다. 압화 꽃잎이 두께가 얇아 세심한 손길이 요구되고, 그 밖의 재료도 오랜 시간 사랑과 정성을 다해야 만들어지는 체험으로, 친구들과 다정한 얘기를 나누며 압화 작품을 완성하는 데 시간을 쏟았다.

압화 체험에 이어 백두대간 식물의 '겨울잠'이 야생화 있는 숲 해설로 생태교육장 주변을 거닐며 숲 해설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생태체험에 참여했다.

이 밖에도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길을 잃은 야기반달곰의 지리산 모험 이야기를 다룬 4D영상 체험, 기후변화 공간, 야생 생태학습, 지리산정원 사계절 사진, 다수 서각 작품, 스마트 정원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로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다양한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